안전협회, 안전관계자 해외산업 안전시찰 실시

안전협회에서는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해외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동향과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 감각을 익히기 위해 2004년 안전관계자 해외산업안전시찰을 실시하였다. (주)데이콤 진영상 안전관리실장외 19명은 6월 7일~12일까지 중국 및 우리나라 진출 사업장을 견학하였고, 대림산업(주) 문의만 과장외 19명은 6월 21일~26일까지 베트남 및 우리나라 진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점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해외산업시찰을 계기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국제적인 안전감각을 키우고, 우리 안전관계자들의 안전의식과 마음가짐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산업안전시찰을 마련하여 우리의 선진 안전활동을 외국에 알리고, 그들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하여 국제적인 선진 안전한국건설에 협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협회, 해외현지공장 안전진단 실시

안전협회 안전기술국에서는 이봉수 국장 외 2명이 중국 복건성 하문시 행림구에 위치한 세계적인 텐트원단 제조업체인 Northpole 행림공장, 조관공장에 대한 화재폭발, 전기·기계설비의 안전성에 대해 2004년 6월 1일부터 4일까지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안전협회가 지난 2000년도부터 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중국 Northpole에서는 금번 진단에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착안점을 가지고 화공기술사이자 OHSAS 18001 심사위원인 이봉수 국장이 참여하여 개선대책 및 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울러 안전협회는 최근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안전진단·자체검사·안전교육 등 안전기술 지도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성남지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산업시찰 실시

성남지회(국장 이선호)는 지난 5월 21일 관할지역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산업시찰을 실시하였다.

이날 방문한 사업장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주)두산 소주로 청정지역에 위치한 회사답게 안전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이번 시찰은 회원들에게 안전과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와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가교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행사가 한 단계 보강된 안전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참가자들의 호평으로 성남지회는 매년 정기적인 산업시찰과 안전인 등반대회를 실시하여 성남지역의 안전문화정착과 산업재해예방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다짐했다.

수원지회, 산업재해예방 결의대회 가져

지난 5월 14일 수원지회(국장 박정규)는 회원 21명, 직원 28명 등 총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도 마니산에서 '산업재해예방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안전인의 솔선수범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가정의, 사회의, 나라의 행복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 안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오늘 결의한 내용처럼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앞장서자' 고 다짐하며,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 안전한 사회가 이룩되기를 기원하였다.

안산지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견학

안산지회(국장 김영옥)는 지난 5월 회원사 안전관계자를 초청하여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에서 안전실태를 접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소재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견학하였다.

태양금속공업외 56명의 참석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은, 회원의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안전관리실태가 우수한 사업장을 방문함으로써 업무 복귀 후 적극적인 무재해 운동 실시와 활동을 꾀하고자 실시되었으며, 타사의 안전 활동을 접함으로써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내적으로의 안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자는 최근 재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산업현장에 안전관리 우수사례가 전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개선 추진

노동부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발전방향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 발전 위원회' (위원장 신수식 고려대 교수)를 구성, 올해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64년 도입이래 산재보험제도는 2000년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늘렸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규모 건설공사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특히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경우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 근골격계 등 작업관련성 질병에 대해 세분화되거나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노사로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 자문기구인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및 업무상 재해인정 범위 확대와 요율체계의 합리화, 사업주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장기적인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재활사업 강화 등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징수·재정, 요양·보상, 재활·복지 등 3개 분과로 나눠져 연구과 제 선정과 연구 및 토론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